

예타 면제 화태~백야 4개 연도교 건설 박차

여수 외곽순환도로 기능 교통체증 완화...고흥과도 연결
전남 동부권~경남 잇는 남해안 해양관광벨트 구축 기대

지난달 29일 정부의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가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 예타 면제 결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섬·바다 등 천연 해양자원을 여수와 남해안 관광명소를 잇는 새로운 신성장 해양관광벨트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도 정부의 예타 면제를 환영하고 나섰다.

여수상공회의소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사업이 선정된 것을 여수지역은 물론 전남지역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태~월호~개도~제도~백야 등 4개의 연도교를 건설해 여수시 남면 화태도와 화정면 백야도를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03년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사업에 반영됐지만, 지난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화태~백야 연도교는 여수지역뿐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건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우선 여수에서는 연도교가 완공되면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해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돌산지역은 섬 특성상 한번 지나간 길을 다시 돌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 등 차량이 밀리는 시간에 교통체증이 빈번했다.
여수시는 연도교 건설로 돌산읍과 화정면 간 국도 77호선이 이어질 경우 교통량이 분산돼 돌산지역은 물론 여수 동부권 교통정체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경제 활성화 효과 측면에서도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은 고흥에서 여수, 경남 남해, 통영, 거제를 잇는 신성장 남해안 관광벨트 구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남해안의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한 다리를 감상할 수 있는

■ 화태~백야도 연도교 가설공사 계획도



명품 해양관광도로가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3년 국도건설사업에 반영된 여수~고흥 간 11개 연륙·연도교 중 8539억원을 들여 이미 개통했거나 공사가 추진 중인 7개 연륙·연도교의 가치와 투자 효과도 더욱 커지게 된다.

특히 올해 말 여수 화양에서 고흥까지 4개 연도교가 추가 개통하면 화태~백야 구간 연도교 건설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11곳 중 돌산~화태(4km), 백야~화양(2.6km), 적금~영남(2.98km) 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안포~장수(7.3km), 화양~조발(2.05km), 조발~남도(3.90km), 남도~적금(3.64km) 등 화양에서 고흥 구간 4개 연도교는 올해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영호 여수시 도로계획팀장은 "올해 6월 KDI사업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연도교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화태~백야 연도교 건설은 아름다운 섬을 잇는 해양관광벨트 효과 등이 더해져 섬 주민 생활편의 향상, 지역 균형발전 및 국내경제 활성화, 세계 섬 박람회 개최 기반 조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삼산면 거문도.

섬 지역 식수원 개발 국비 100억 확보

여수시, 관정 개발·해수 담수화 시설 조성 등 본격화

만성적인 생활용수 공급 부족 현상을 겪던 여수시 섬 지역에 식수원 개발을 위한 관정 설치 등이 본격화된다.
여수시는 거문도 등 도서 지역의 식수원 개발에 필요한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국비 100억 원과 시비 등 43억원을 포함한 '도서 지역 식수원개발 사업'비 143억원을 들여 도서 지역에 관정을 개발하고 해수 담수화 시설 및 관료 장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산면 거문도 동도 등 17개 도서에서 식수원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국비 확보로 도

서 지역 주민이 깨끗한 생활용수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 편의를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365개의 섬이 포함된 여수시의 경우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섬 지역도 상수도 공급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섬 주민들이 깨끗한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섬 주민들은 지붕과 연결된 빗물저장장치 등을 활용해 모아진 빗물을 걸러 일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름철 등 사계절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안심하고 자전거 타세요”...여수시 보험 가입



여수 시민 공영자전거 '여수랑'.

여수시는 시민과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1억 4701만원을 들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개인 실손 보험과 별도로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이번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여수시민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2500만원 ▲후유장애 최대 2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과 입원 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공영자전거(여수랑) 이용자는여수시민이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 시 약정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애에 최대 3000만원 ▲사고 배상책임 최대 1억원 ▲입원 1일당(최대 180일) 1만원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중 다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사고를 대비한 자전거보험은 차선이다"며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형 어린이집’ 시동...민간 어린이집 2곳 선정 지원

여수시가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2곳을 선정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여수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한다

여수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은 후 서류평가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열어 2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준비하던 곳으로 운영의 안정성·보육교직원 전문성·자율평가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여수시는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들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등 운영비를 매달 400만~570만원 씩 1년간 지원한다.

여수의 어린이집은 모두 151곳이며 이 가운데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14개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형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탈락했거나 선정 준비를 하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부모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호해 ‘여수형 어린이집’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소호동 소제마을 택지개발사업 하반기 공사 돌입

여수시 소호동 소제마을 택지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수시는 소제마을 41만8000㎡에 시비 1324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3년 준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전남도로부터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주거시설용지 20만640㎡(48%), 상업시설용지 1만2540㎡(3%), 공원·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로 20만4820㎡(49%)를 조성한다.

택지개발 사업지구 보상물건은 토지

536필지, 주택 94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실태조사 완료 보상물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3월 8일까지 토지, 건물, 지장물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다.

여수시 관계자는 “소제마을은 가막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경관이 매우 뛰어난 곳”이라며 “주민들과 원만하게 보상 협의를 거쳐 여수를 대표하는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권오봉 시장, 정부에 여수산단 물 부족 해결 방안 건의



권오봉(왼쪽에서 두번째) 여수시장이 지난 11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만나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확보대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요청했다. <여수시 제공>

권오봉 여수시장이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대규모 신증설이 이뤄지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물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12일 여수시에 따르면 권 시장은 전날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만나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확보대책과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을 요청했다. 또 이학수 한수원 사장을 면담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 공업용수 확대 공급을 건의했다.

시는 2021년까지 GS칼텍스 등 6개 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마무리되면 공업용수 10만t가량이 추가로 필요하고, 2025

년이면 25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도 사업 예산 1688억원을 환경부와 한수원에 요청하고 있다.

또 공장 신증설로 하루 폐수 발생량이 2만1943㎥ 증가해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시설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정지관, 지역사회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지붕공사

한옥, 사찰, 축사, 하우스
데스리, 펜션, 전원주택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